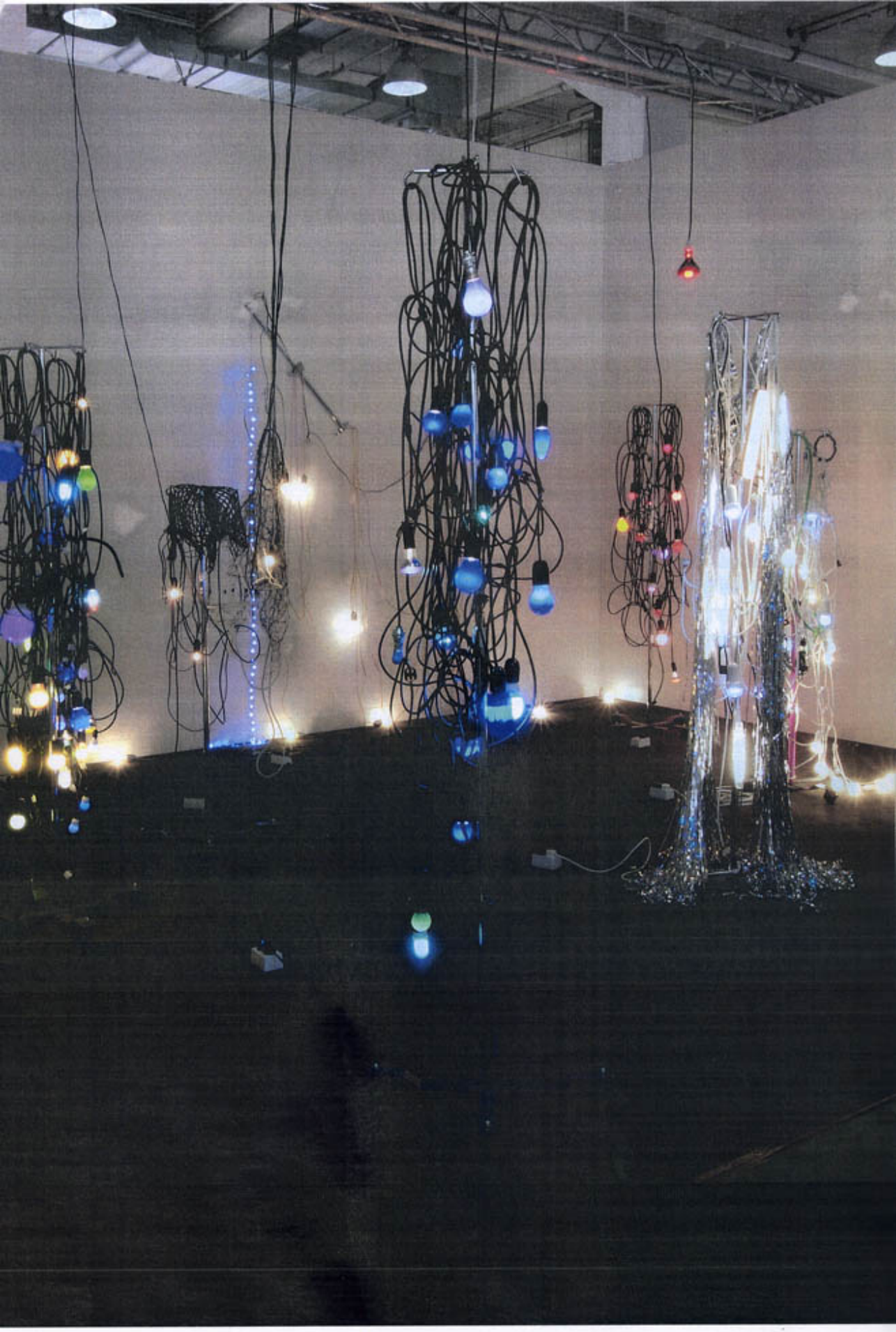
art in culture
2009. 6. 00
국제갤러리(주)

HAEGUE YANG

양혜규 1971년 서울 출생. 1994년 서울대 조소과 졸업, 1996년 프랑크푸르트예술아카데미를 졸업. 현재 함부르크대학 객원교수로 재직중. 2006년 현대미술센터(BAK, 유트레히트), 2008년 큐빗갤러리(런던), 포르티쿠스(프랑크푸르트), 레드캣아트센터(LA), 살라레알(헤빌바오)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2002년 제4회 광주비엔날레, 2006년 제27회 상파울로비엔날레, 2007년 워커아트센터(미니애폴리스), 안양공공프로젝트, 2008년 제2회 토리노트리엔날레, 카네기인터내셔널(피츠버그) 등 다수의 국제 기획전, 비엔날레에 참여했다. 현재 베를린과 서울을 오가며 작업 중이다.

제53회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은지 커니셔너의 기획으로 양혜규의 개인전 〈응결〉을 선보인다. 양혜규는 한국관에서 여성작가로는 첫 번째 단독 전시를 연다. 작가는 자신이 거주하는 독일 베를린 집 부엌을 실제 크기로 재현한 조각 〈살림〉과 빛과 블라인드를 소재로 한 설치 작업 〈일련의 다치기 쉬운 배열-목소리와 바람〉, 그리고 영상 작업 〈쌍과 반쪽-이름없는 이웃들과의 사건〉 등 총 3점의 작업을 새롭게 선보일 예정이다. 작가는 주변화된 공간에 내재한 잠재력과 새로운 관객 참여 형태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왔다. 양혜규의 작품은 다니엘 번바움이 기획한 아르세날레 본 전시에도 소개된다.

아래 · 〈Three Kinds〉 장소특정적 설치 제55회 카네기인터내셔널 전시 장면 2008 Courtesy: 바바라빈갤러리(Galerie Barbara Wien) Photo: 탐 리틀(Tom Little) 2008 | 오른쪽 페이지 · 〈Seven Basel Lights〉 장소특정적 설치 2007 Courtesy: 바바라빈갤러리, 함부르크문스트할레 소장